

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의 탈식민주의 여성운동이 독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한정화 _코리아협의회 대표이사 및 코리아 포럼 편집장

식민지 시대부터 디아스포라의 한인들은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를 해왔다. 독일은 한인들의 활동을 1990년도 초반까지는 제3세계 차원에서 후원했었다. 그 이후 한국은 개발대상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애매한 국가들에 속해 있었다. 개발대상국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너희 나라는 잘 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야지!”라고 우리를 항상 외계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던 독일사회에서 이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이후 과거 독일의 식민지배와 인종 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주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변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설치되면서, 베를린 코리아협의회 활동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이 과정을 나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침울한 유신 시대 한국의 70년대와 독일로의 이주

나는 소위 1.5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25세에 속한다. 1세대는 성인이 되어 해외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며, 2세, 3세, 4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를 따라 어느 정도 철이 들어 해외로 이주한 자녀들은 1.5세이다. 우리들의 공통점은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한국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며, 그곳에 친척과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1978년에 독일에 간호사로 오신 어머니를 따라 이주해서, 보수적인 남부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의 군사 독재 시대, 특히 그 침울했던 유신시대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반장은 선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으로 된다고 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영어 신문 논설위원이셨던 아버님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집에서 영문 번역과 기사 기고문 등을 쓰시느라 쉴 틈이 없게 치던 타자 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없이 침울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새어나오는 무거운 한숨의 소리가 가득하였다. 생계도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1970년대에 독일행을 선택하셨다. 당시는 동백림 사건의 기억이 생생할 때여서 해외에 간다는 것은 차칫 잘못 간첩으로 몰려 한국으로 납치되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특히 독일은 사회주의 동독과 맞대고 있어서, 그 공포가 더욱 심했다.



〈사진 1〉 5월 광주 베타테이프(위),
독일에서 제작된 광주 영상물
테이프(아래) ©오픈아카이브



〈사진 2〉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 있는
광주시민들 ©오픈아카이브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채감

거기다 내가 이주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독일에서 보도된 몇 분의 뉴스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당시 남부 독일에는 한인의 숫자도 몇 안 되었고, 한국 친구는 한 명도 없고 한국 문제에 무심한 독일 친구들밖에 없었다. 한국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알고 지내던 운동권의 동창 한 명과만 유일하게 연락하고 있었다. 그 동창은 방직 공장 같은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친구였다. 그는 광주 관련 테이프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게 된 소식을 알려 왔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 그 친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나에게는 은행 계좌도 없었고, 한국에 어떻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내 마음 깊숙이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어떻

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당시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생활 수준이 높았던 독일에서의 평온한 삶은 나의 동창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 혹은 부채감으로 항상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러한 부채감은 한인 들뿐만 아니라, 독일에 살고 있는 많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 나 사회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공유했을 것이다.

2. 분단된 베를린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한인들과의 만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튀빙겐대학에 입학했다가 1987년에 베를린 자유 대학 석사과정으로 편입했다. 당시 두터운 장벽이 아직 베를린 도시 한복 판을 가로지르던 때였다. 베를린의 분위기는 서독의 도시들보다 어두웠지만, 훨씬 정치적이며 자유분방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대도시에서 갑자기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 느낌이 들었고, 동양학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의 한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유럽민협(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라는 곳에서 『민주조국』 신문의 독일어판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 다른 젊은 유학생들이 이런 저런 기사들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뢰했다. 내가 처음 번역한 기사는 남영동대공분실과 관련한 기사로, “나는 어떻게 스파이가 되었나?”라는 회고였다.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워 신문지 2면의 분량을 번역해 냈다.

한 1년후에는 독일어판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 당시 한국학과 독일 학

생들과 함께 한국 문제를 새롭게 다루는 『한겨레신문』에서 좋은 기사들을 골라 번역도 하고 직접 기사도 쓰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987년 6월 이후 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드디어 여성과 젠더 문제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번역 작업을 통해 나의 한국어 수준과 독일어로 번역하는 실력도 부족 않게 되었다. 번역 작업은 매우 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매월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더더욱 무척 고된 일이었다. 번역, 편집, 인쇄, 우체통에서 손수 신문을 부칠 때까지 학교공부와 아르바이트, 육아까지 병행하는 것은 정말 고되었다. 하지만 당시 민협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그 유명한 임수경 씨가 민협을 통해 평양으로 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한 3년후에야 알게 되었다. 1989년 11월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은 통일의 현장이 되었다.

3.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창립과 활동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까지 나는 석사 논문 준비로 민협과 다른 대외활동들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91년도에 한국에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리서치를 했고, 동시에 김학순 할머니님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큰 파장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이하 코협)가 1990년에 서독 루르지역에서 창립되었다. 당시의 주핵심 멤버들은 1967년도 동베를린 사건 이후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독일인과 한국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1988년 한국 올림픽게임과 그 뒤에 숨은 비리들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윤이상 작곡가가 베를린에서 납치되어 구명운동을 벌인 귄터 프로이텐베르크 교수(Günter Freudenberg)는 사단법인 코리아협의회를 다른 민주인사들과 창립하였고 동시에 아시아하우스 재단도 설립하였다.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의 전반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침해, 노동문제 등을 다루는 단체들과 연대했고,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미 독일 통일 이전부터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수월했다. 코리아협의회에서도 독일어권에서 거의 유일한 전문 잡지인 『코리아 포럼(Korea Forum)』을 출판했다. 인터넷 시대 이전까지 코협은 한반도 관련 정보를 독일인에게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08년 코협은 루르지역에서 베를린으로 사무실을 옮겨,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한민족유럽연대, 독일여성모임, 진보적인 한인 교회 및 독일인 그리고 2세와 1.5세, 유학생 등이 합류하게 된다. 2008년 5월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인 야지마 츠카사 사진작가와 함께 강연을 하면서 첫발을 코협에 디디게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에도 한반도 관련 다양한 이슈, 즉 5·18민주화운동, 4대강, 세월호, 2016년 촛불시위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특히 로버트 보쉬 재단의 후원 및 협력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통합을 위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Exchange Program for Regional Intergration in Europe and East Asia)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60명의 젊은 인재들을 키워냈다. 과



〈사진 3〉 2021년 11월, 코리아협의회는 한국의 정의기억연대로부터 김학순상을 받았다.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성폭력과 인권 유린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거 나치시대 청산이 매우 중요한 독일 사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의 후원으로 독일 전 지역의 순회 강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란 가부장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과거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과 은폐를 통해 외교적인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으로 ‘이주’ 하면서, 독일 사회에서의 코헨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4.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코헨 내 AG ‘Trostfrauen’(일본군 ‘위안부’ 행동)은 다양한 여성 단체와 한인은 물론 일본, 필리핀, 콩고, 베트남계 등의 평화의 소녀상을 2020년 9

화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독일 시민들의 활동

사진 제공: 코리아협의회



베를린 지역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습



2021년 4~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말잇못-시끄러운 침묵' 전시의 모습.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0월 기자회견 및 시위



2021년 11월 열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관련 집회 "Demo: Wir sind die Friedensstatue"

월 28일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설립 열흘 만에 일본의 압력으로 독일 미테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최소 2,5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즉시 변호사를 통해 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의 부당함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의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독일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에 침범하는 공권력에 분개했다. 정치가, 언론, 유명인사들이 반응했고 서명운동이 이뤄져 몇 일 사이 1만 2,0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그 결과로 철거 명령은 보류되고 3개월 만에 회수되었다. 그 후 미테 지역구 3당(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에 소녀상 영구 존치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현재 2022년 9월 28일까지 1년만 연장이 되었다. 미테구청은 예술위를 통과한 조형물은 최대 2년만 전시될 수 있다고 뜻을 박아 버렸다. 하지만 대다수의 베를린 주민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베를린에 영원히 남기를 염원하고 있다. 2022년도 현재 코헨은 또다시 미테구청장 및 공무원들과 미테구 의원들, 베를린시 그리고 독일연방정부가 집요하고 끈질긴 일본 정부의 압력에 항복하지 않도록 <평화의 소녀상>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과 아시아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 사회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국가범죄, 전쟁 범죄는 독일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압력으로 베를린 구청이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독일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베를린 미테구청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만 치부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부장적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앓을수록, 소녀상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독일 사회의 유럽 중심주의적, 가부장적, 제국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독일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마침 다행히도 현재 독일 사회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과 탈식민주의 운동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5. 우월감의 민족주의와 저항의 민족주의의 차이에 대한 무지

독일은 나치시대의 민족주의를 조성하여 저지른 만행을 수없이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 특히 페미니즘과 젠더학을 연구한 나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처음 평화의 소녀상을 대했을 때 왠지 불편했었다. 당시 나 역시 유럽중심주의 개념의 민족주의만 알고 있었기에 민족주의는 금기였다. 사실 나치시대 아리아인의 우월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인들은 현재 애국심에도 경계감을 갖는다. 하지만 식민지배를 당한 한인들의 일본의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형성된 민족주의는 이와 다르다. 정의와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등, 평화를 염원하는 민족주의의 시작은 서구의 민족주의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도 소수를 배척하는 우월주의 민족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배를 행하였던 제국들은 대다수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일

반 시민들, 심지어 정치가들도 일본이 식민지배국가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즉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는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다. 특히 식민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독일 시민들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인의 심리는 피부로 느끼지만, 식민지배를 당한 피해국인들의 심리는 잘 모른다.

6. 한국의 반(反)식민주의는 반일(反日)이 아니다

유럽에서의 반식민주의는 한 국가만 향하지 않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등 다양한 국가들을 향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반식민주의는 항상 반 일본과 동일시되어 버린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식민주의’도 유럽중심주의적임을 알려야만 한다. 독일 정부는 일본이 현재 G7 국가에 속하는 강대국임에 불구하고도 유럽과 동등한 입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저변에 깔려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우월감 때문이다. 더구나 독일은 과거 나치 시대 청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전에 매우 잔인한 과거 식민지 역사의 청산은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독일의 입장은 ‘우리의 식민지배의 역사는 짧았고 우리는 식민지도 얼마 없었다’였다. 학교에서 독일의 당시 잔인했던 식민지배에 대해 교육하지 않아 식민지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

독일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소녀상을 세웠다고 생각하기조차 한다. 하지만 소녀상은 시민단체가 시민의 손으로 세운 것이다. 소녀상은 전반적인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고노 담화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문제는 고노 담화를 부인하는 정치가들이 수도룩하고,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이 문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는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 독일인들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왜 유럽과 독일은 세계 제 2차 대전당시와 그 이후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는가? 이 질문의 답에는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

7. 왜 유럽과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피해 여성들은 침묵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대량으로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비슷한 베어마흐트 보르텔(Wehrmachtsbordell) 제도가

있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위안소 제도가 있었다. 또한 독일이 패전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소련은 구동독에서, 미군 프랑스군 영국군들은 서독에서 여성들을 대량으로 강간했다. 독일은 과거 한국의 독재 시대 때와 같이 이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도 않고 있다. 침묵을 깬 여성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있다. 하지만 독일 학교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교육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독일 사회에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독일과 유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같이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정의연과 같은 여성단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의 피해 여성 중 아무도 독일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지 못했다. 독일 나치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은 독일 점령군과 관계를 맺은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독일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본인이 만약에 소련군의 피해 여성의 편을 들면, 민족주의자로 인지되기 때문에 독일 피해 여성들을 대변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다고 했다. 전범국이고 패전국인 독일은 현재 자신의 어머님과 할머니들이 당했던 트라우마에 대해 침묵하고만 있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은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여 마구잡이로 강간을 한 줄 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군정부의 명령으로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동원 사실을 알면 너무 놀라워 한다.

한국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어땠는가? 일본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여성, 기생 관광, 매매춘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김학순 할머니

게서 침묵을 깰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성운동, 인권운동이 드디어 활개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운동의 초창기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민족의 수치라고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억은 이 문제가 다시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업적이다.

8.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독일사회에서 탈식민적 페미니즘 교육의 시작

베를린에서 우리는 브론즈 소녀상을 세우기 1년 전인 2019년 아이치 트리아넬레에서 금지된 소녀상 계열의 채색 플라스틱 소녀상을 전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소녀상에게 <용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베를린 브론즈 소녀상의 이름은 <아리>이다. 이 이름은 아르메니아에서 유래되었으며 의미는 용기이다.) 이 소녀상을 휠체어에 태워서 기차, 전철, 지하철, 버스등 공공 시설로 이동하는 퍼포먼스도 자주 한다. 소녀상과 시위, 연극, 전시장 등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재미 있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어 온다.

한 번은 젊은 남성이 미소를 띠면서 이 인형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적임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 여성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젊은 남성에게 “미안하지만, 이 포퍼먼스는 사실 아주 아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인형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성노예를 당한 ‘위안부(Trostfrauen)’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 남성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일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일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소녀상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드러났다.

아이들을 통해 소녀상과 소통하면서, 소녀상의 마력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왜 소녀가 주먹을 쥐고 있냐고 물어본다. 그 다음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소녀상의 차가운 손을 어루만져 준다. 그리고 소녀상의 빈 의자에 앉아 본다.

성폭력을 당한 소녀가 망가지지 않고 예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 가해자가 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악한 범죄에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이 모습은 보는 이에게 용기를 준다. 그리고 상상 속의 새는 ‘너는 혼자 아니야!’라고 말해 준다. 그것은 보는 이에게도 위로가 되고 연민(empathie)은 연대(solidarity)로 발전된다. 소녀상은 높은 단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와 같은 눈높이에 있다. 아이들은 소녀의 얼굴을 만질 수 있고, 머리에 화관을 씌우기도 하고, 무릎에 앉기도 한다. 그리고 빈 의자에 앉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어요!’라고 기억한다. 바로 이것이 현재 유럽에서 일고 있는 식민주의의 백인 남성들의 기마상을 쓰러뜨리는 반식민주의에

대안하는 기억의 문화이다. 한국의 식민지배의 기억은 유럽 사회에서 배재되었던 식민지배를 받았던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들의 기억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다.

9. 누구의 역사가 독일의 역사인가?

나는 베를린 시민들이 소녀상 발 앞에 갖다 놓는 꽃들을 보면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도로 주변에 세워진 자그마한 마리아 동상들을 상기한다. 아마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마리아상을 세워 놓고 촛불과 꽃을 갖다 놓았으리라 생각한다. 소녀상은 국가가 영웅을 기리기 위해, 아니면 독일과 같이 범죄자의 시각에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소녀상은 베를린 시민들이 코헨과 함께 세운 것이다. 소녀상 앞에 꽃을 가져다 놓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녀상은 끊임없이 베를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높은 기마상은 우리가 우리러보아 왔으나, 그 발굽에 채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부재했다. 소녀상은 바로 그 무수히 사라진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신티와 로마(과거 집시로 불리움), 아르메니아, 야지디 등, 우리와 같은 이주민 단체들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탈식민 단체들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 왔다.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비를 세운 단체들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과 투쟁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우리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시아라는 먼 대륙에서 온 소수자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독일 주류 사회에 통합되고 인정을 받으려 했었다. 소녀상을 통해 연대의 범위가 넓혀졌다. 소녀상을 통해 주변에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녀상은 베를린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성폭력의 의미에서 더 크게 국가의 부당함과 인권 침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독일 사회의 약자들과 소통하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타 아시안 커뮤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추모와 저항의 공간이 되었다. 바로 이것인 탈식민주의인 것이다. 페미니즘의 상징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코헨은 지금까지 한국을 독일에 알리고 한국과 연대를 해왔다. 보통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그들의 음식 및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주해 온 커뮤니티들의 역사는 특히 트라우마와 그 극복의 역사인 것이다. 그 한 사례가 평화의 소녀상에 집약되어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에서 이주해 왔지만,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역사도 이제는 독일의 역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영토에서 독일인이 경험하는 것만이 독일의 역사는 아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의 전쟁 범죄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국과 연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일과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한 우리의 역사가 독일의 역사인 것을 인정받아야 우리는 탈식민주의적이고 초국가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다~~